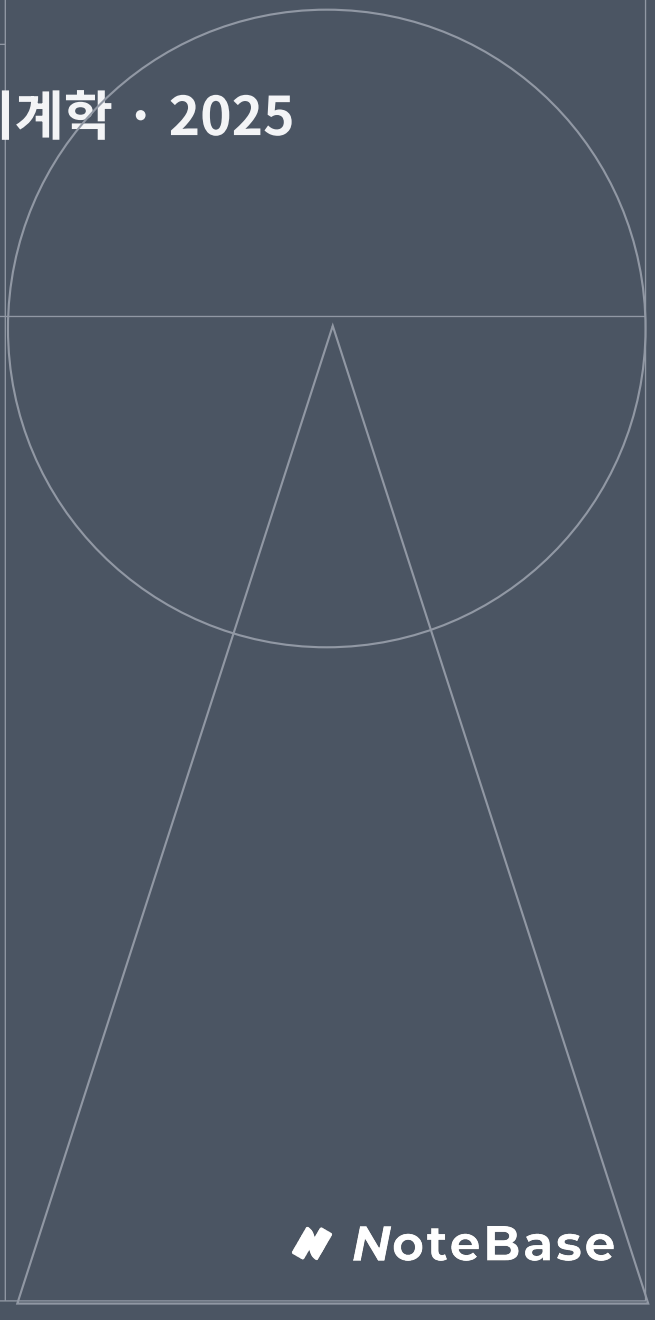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회계학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회계학 · 2025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회계학 · 2025

문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비교가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질적특성과 달리 비교가능성은 단 하나의 항목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다.

②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가한다.

③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은 비슷한 것을 달리 보이게 하여 보강되지 않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비슷하게 보이게 한다고 해서 보강되지 않는다.

④ 목적적합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표현충실성은 다른 보고기업의 유사한 목적적합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표현충실성과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을 자연히 가져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비교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도록 돕는 특성이므로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다. 한 기업의 여러 기간을 비교하거나 서로 다른 기업의 유사한 항목을 비교할 수 있다.

② (X) 동일한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여럿일 수 있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보고된 차이가 경제적 실질 때문인지 방법 선택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져 **비교가능성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③ (O) 비교가능성은 **획일성과 다르다.**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드러나야 한다. 실질이 다른 항목을 억지로 같게 표시하거나 유사한 항목을 다르게 표시하면 비교에 필요한 정보를 오히려 흐리게 된다.

④ (O) 목적적합한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면, 다른 기업이 유사한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한 정보와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이는 모든 금액이나 표시가 완전히 같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2.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도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②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오직 재무제표에만 적용하며 연차보고서, 감독기구 제출서류 또는 다른 문서에 표시되는 그 밖의 정보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작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회계기준이 특정 공시를 요구하더라도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공시 요구사항에도 중요성 판단을 적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기준서에서 특정 공시를 요구하더라도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해당 공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중요성은 정보의 누락·오류·불분명한 표시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기준이다. 최소 공시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기계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표시하지만,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상계는 가능하다. 주된 수익창출 활동에 부수되는 동일 거래의 수익과 관련 비용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경우 순액**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 처분에서는 처분대가와 장부금액 등을 반영한 처분손익을 표시한다. 일반적인 매출과 매출원가를 언제나 상계한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재무제표와 같은 문서에 실린 다른 정보를 구별해야 한다. 연차보고서나 감독기구 제출서류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재무제표 이외의 모든 정보에 회계기준을 반드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문서에 들어 있는 재무제표 자체는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이다.

④ O: 미래의 결과나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금액은 추정이 필요하므로, 추정치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가 부적절해지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추정 과정과 추정의 성격·한계를 명확히 설명**하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임의의 숫자도 설명만 붙이면 허용된다는 뜻이나 추정치가 실제 결과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취득원가 ₩51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10,000)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와 20×2년 말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① 감가상각비: ₩162,500, 감가상각누계액: ₩312,500

② 감가상각비: ₩162,500, 감가상각누계액: ₩318,750

③ 감가상각비: ₩162,750, 감가상각누계액: ₩312,500

④ 감가상각비: ₩162,750, 감가상각누계액: ₩318,75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20×2년에는 **첫 사용연차 3개월과 둘째 사용연차 9개월**이 포함된다. 감가상각비는 $200{,}000 \times \frac{3}{12} + 150{,}000 \times \frac{9}{12} = 162{,}500$원이고, 전기 150,000원을 더한 누계액은 312,500원이다.

계산 과정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사용연차별 잔여 내용연수의 비율을 적용하는 체감상각법이다. 이 문제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510{,}000 - 10{,}000 = 500{,}000$원이고, 연수의 합은 $4 + 3 + 2 + 1 = 10$이다.

첫 사용연차의 연간 감가상각액은 $500{,}000 \times \frac{4}{10} = 200{,}000$원, 두 번째 사용연차는 $500{,}000 \times \frac{3}{10} = 150{,}000$원이다. 취득일이 20×1년 4월 1일이므로 첫 사용연차는 20×2년 3월 말까지 이어진다.

20×1년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므로 감가상각비가 $200{,}000 \times \frac{9}{12} = 150{,}000$원이다.

20×2년의 감가상각비는 **첫 사용연차의 남은 3개월과 두 번째 사용연차의 9개월**을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aligned&200,000×(3)/(12)+150,000×(9)/(12)&=50,000+112,500=162,500aligned 원이다.

20×2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 이후 두 회계연도의 감가상각비를 합한 $150{,}000 + 162{,}500 = 312{,}500$원이다. 당기 비용과 누적액을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162,500원, 감가상각누계액 312,500원인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복구 조건이 있는 오물처리장(취득원가 ₩11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 정액법 상각)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다. ㈜한국은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복구비용 ₩20,00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복구비용은 ₩22,000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장이자율은 8%이며, 단일금액 ₩1에 대하여 미래가치 1.3, 현재가치 0.8을 적용한다.)

① 20x1년 오물처리장의 취득원가는 ₩126,000이다.

② 20x1년 기말 감가상각비는 ₩23,200이다.

③ 20×1년 기말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은 ₩2,080이다.

④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당기손실 ₩2,000을 인식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복구충당부채의 첫해 전입액은 **기초 충당부채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지시된 현재가치계수로 계산한 최초 인식액 16,000원에 8%를 적용하므로, 전입액은 2,080원이 아니라 **1,28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취득 시 발생한 원상복구의무가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추정 복구비의 현재가치**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같은 금액을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문제에서 적용하도록 한 현재가치계수는 0.8이므로 최초 복구충당부채는 20,000 × 0.8 = 16,000원이다. 따라서 오물처리장의 취득원가는 110,000 + 16,000 = 126,000원이다.

② O: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복구비의 현재가치까지 포함한 취득원가 126,000원에서 잔존가치 10,000원을 차감하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16,000원이다. 연초에 취득하였으므로 첫해 감가상각비는 $\frac{126,000 - 10,000}{5} = 23,200$원이다.

③ X: 복구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인식한 뒤에는 시간 경과에 따른 할인액의 상각분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부채를 증가시킨다. 첫해 전입액은 기초 복구충당부채 16,000원에 시장이자율 8%를 곱한 16,000 × 8% = 1,280원이다. 따라서 선지의 2,080원은 **1,28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내용연수 종료시점에는 할인할 잔여기간이 없으므로 추정 복구비 20,000원을 기준으로 실제 지출액을 정산한다. 실제 복구비 22,000원이 추정액을 초과하므로 **초과 지출액을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그 금액은 22,000 − 20,000 = 2,000원이다.

NoteBase

문 5. ㈜한국은 고객에게 냉장고와 세탁기를 이전하고 ₩5,000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였다(냉장고와 세탁기의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은 각각 ₩3,000, ₩2,000이다). 이 계약은 냉장고를 먼저 인도하고, 그 대가는 세탁기의 인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었다. ㈜한국이 냉장고와 세탁기 인도시점에 인식할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단, 냉장고와 세탁기의 이전 계약은 둘 다 외상거래이다.)

① 냉장고 인도시점에 차변에 계약자산 ₩3,000을 인식한다.

② 냉장고 인도시점에 대변에 계약부채 ₩5,000을 인식한다.

③ 세탁기 인도시점에 차변에 수취채권 ₩2,000을 인식한다.

④ 세탁기 인도시점에 대변에 매출수익 ₩5,000을 인식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냉장고를 인도하면 수익 3,000원을 인식하지만, 대가를 받으려면 세탁기도 인도해야 한다. 따라서 냉장고 인도시점의 권리는 무조건적인 수취채권이 아니라 **계약자산 3,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냉장고와 세탁기는 별도의 수행의무이므로 각 제품을 인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배분된 수익을 인식한다. 거래가격 5,000원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냉장고 3,000원, 세탁기 2,000원으로 배분된다. 계약자산은 대가를 받을 권리에 시간 경과 이외의 조건이 남은 자산이고, 수취채권은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이다.

① O: 냉장고를 인도하면 냉장고 관련 수익 3,000원을 인식한다. 다만 대금을 청구하려면 세탁기도 인도해야 하므로 **추가 수행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자산**을 차변에 3,000원, 매출수익을 대변에 3,000원 기록한다.

② X: 계약부채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대가를 받거나 그 대가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생기는 이행의무이다. 이 계약은 외상거래이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세탁기 인도에 달려 있으므로 냉장고 인도시점에 계약부채 5,000원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때 대변에 인식하는 것은 냉장고의 매출수익 3,000원이다.

③ X: 세탁기까지 인도하면 대가를 받을 추가 수행 조건이 해소되어 **전체 대금 5,000원에 대한 수취채권**을 차변에 인식한다. 대변에는 기존 계약자산 3,000원을 제거하고 세탁기 매출수익 2,000원을 인식한다. 2,000원은 이 시점의 신규 수익이지 전체 수취채권 금액이 아니다.

④ X: 냉장고의 수익 3,000원은 먼저 인도한 때 이미 인식했으므로 세탁기 인도시점에 다시 수익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이때 새로 인식할 매출수익은 세탁기에 배분된 2,000원이며, 두 시점의 누적 매출수익이 5,000원이 된다.

NoteBase

문 6. 유형자산 재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지며,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② 동일한 유형 내의 유형자산은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일에 재평가한다.

③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재평가는 **동일 유형의 자산 전체에 적용하여 선택적 재평가를 방지**해야 한다. 임의로 선택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일의 금액을 혼합한다는 ②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평가는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충분히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공정가치 변동이 클수록 더 자주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유형자산에 동일한 고정 주기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② (X) 한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면 **그 자산이 속한 동일 유형 전체를 재평가**해야 한다. 유리한 자산만 선택하거나 서로 다른 시점의 평가액이 뒤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동시에 재평가한다. 다만 짧은 기간에 해당 유형 전체의 평가를 마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는 순차적 재평가가 가능하다.

③ (O) 재평가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에 누적한다. 그러나 **동일 자산의 과거 당기손익 인식 재평가감소액을 되돌리는 부분**은 그 한도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한도를 초과한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④ (O)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기는 것은 **자본 항목 사이의 직접 대체**이다. 당기손익을 거치는 재분류가 아니므로 이 대체 자체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NoteBase

문 7. ㈜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20×2년 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420,000으로 추정되어 손상을 인식하였다. 20×3년 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410,000으로 회복되었을 경우, ㈜한국이 20×3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① ₩110,000

② ₩120,000

③ ₩130,000

④ ₩14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환입 전 장부금액은 280,000원이고, 손상이 없었다면 장부금액은 400,000원이다. 회수가능액 410,000원까지가 아니라 **손상이 없었을 때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환입하므로 환입액은 120,000원이다.

계산 과정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은 손상 후 장부금액을 잔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이후 손상차손을 환입하더라도 장부금액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2년 말 손상 인식: 잔존가치가 0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므로 최초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1,000,000}{5} = 200,000$원이다. 2년간 감가상각한 장부금액은 $1,000,000 - 200,000 \times 2 = 600,000$원이다. 회수가능액 420,000원까지 낮추므로 손상차손은 180,000원이고, 손상 후 장부금액은 420,000원이다.

20×3년 말 환입 전 장부금액: 손상 당시 잔여 내용연수는 3년이다. 손상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 20×3년 감가상각비는 $\frac{420,000}{3} = 140,000$원이다. 따라서 환입 전 장부금액은 $420,000 - 140,000 = 280,000$원이다.

손상차손 환입 한도: 손상이 없었다면 3년간 매년 200,000원씩 감가상각했으므로 20×3년 말 장부금액은 $1,000,000 - 200,000 \times 3 = 400,000$원이다. 회수가능액은 410,000원이지만 **환입 후 장부금액의 상한은 400,000원**이다.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400,000 - 280,000 = 120,000$원으로 ②와 일치한다. 회수가능액과 환입 전 장부금액의 차이인 130,000원을 모두 환입하면 손상이 없었을 때의 장부금액 한도를 10,000원 초과하게 된다.

NoteBase

문 8. ㈜한국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계속기록법으로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고,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8월 1일 재고자산 판매 시점에서 매출원가와 매출이익은?

20×1년 일자	적요	단위(개)	원가(₩)
1월 1일	기초재고	30	41
5월 1일	판매	20	52
7월 1일	구입	90	51
8월 1일	판매	80	60

① 매출원가: ₩4,000, 매출이익: 알 수 없음

② 매출원가: ₩4,000, 매출이익: ₩800

③ 매출원가: ₩4,050, 매출이익: 알 수 없음

④ 매출원가: ₩4,050, 매출이익: ₩8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계속기록법의 가중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이동평균법**이다. 7월 매입 후 평균단가는 50원이므로 8월 매출원가는 **80개 × 50원 = 4,000원**, 매출이익은 80개 × 60원 − 4,000원 = 800원이다.

출제 포인트

계속기록법에서 이동평균단가로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판매단가로 구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1월 1일 기초재고: 30개, 개당 취득원가 41원.
- 5월 1일 판매: 20개, 표에 표시된 금액 52원.
- 7월 1일 구입: 90개, 개당 취득원가 51원.
- 8월 1일 판매: 80개, 표에 표시된 금액 60원.

공식 정답 ②는 판매 행의 금액을 판매단가로 해석할 때 성립한다. 원문 열 제목은 '원가(₩)'이고 판매단가라는 별도 조건은 없으므로, 표제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판매가격 정보가 없어 매출이익을 확정할 수 없다. 아래 계산과 선지 판단은 공식 정답에 따른 판매단가 해석을 전제로 한다. 기초재고·구입 행의 금액은 취득원가이다. 구해야 할 것은 8월 1일 판매분의 매출원가와 매출이익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이동평균단가=매입 직전 재고금액+새 매입금액매입 직전 재고수량+새 매입수량
매출원가 = 판매수량 × 판매 시점의 이동평균단가
매출액 = 판매수량 × 판매단가
매출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계속기록법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재고수량과 금액을 기록한다. 여기에 가중평균법을 적용하면 매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와 새로 산 재고의 원가를 합쳐 평균단가를 갱신한다. 판매할 때는 그 시점의 평균단가를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5월 판매 후 남은 기초재고
5월 판매 전에는 기초재고만 있으므로 원가단가는 41원이다. 판매 후 재고수량은 30개 − 20개 = 10개이고, 재고금액은 10개 × 41원 = 410원이다. 판매단가 52원은 재고원가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2. 7월 매입 후 이동평균단가
매입금액 = 90개 × 51원 = 4,590원
재고수량 = 10개 + 90개 = 100개
재고금액 = 410원 + 4,590원 = 5,000원
이동평균단가=5,000원100개=50 원/개
이 50원은 7월 매입 후 보유한 재고 한 개의 평균원가이다.

3. 8월 판매분의 매출원가와 매출이익
매출원가 = 80개 × 50원 = 4,000원
매출액 = 80개 × 60원 = 4,800원
매출이익 = 4,800원 − 4,000원 = 800원

NoteBase

선지 판단

다음 O/X 판단은 판매 행의 금액을 판매단가로 해석하는 공식 채점의 전제를 따른다.

① X
매출원가 4,000원은 맞지만, 이 해석에서는 매출이익을 알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8월 판매단가 60원과 판매수량 80개로 매출액 4,800원을 구할 수 있으므로 매출이익은 800원이다.

② O
판매 시점의 이동평균단가 50원에 판매수량 80개를 곱하면 매출원가가 4,000원이다. 매출액 4,800원에서 이를 차감하면 매출이익이 800원이므로 두 금액 모두 일치한다.

③ X
이 해석에서는 매출원가 4,050원과 매출이익을 알 수 없다는 부분이 모두 틀리다. 이동평균단가가 50원이므로 매출원가는 4,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8월 판매 행의 60원을 판매단가로 해석하므로 매출이익은 800원으로 구할 수 있다.

④ X
매출이익 800원은 맞지만, 매출원가 4,050원이 틀리다. 매출원가는 80개 × 50원 = 4,000원이다. 매출원가를 4,050원으로 잡으면 매출액 4,800원과의 차이가 750원이 되어 제시된 매출이익 800원과도 맞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7월 평균단가를 구할 때 이미 판매한 20개를 포함해 기초재고 30개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함정이다. 매입 직전 남은 10개만 새 매입 90개와 합쳐야 한다. 또한 공식 정답 ②는 판매 행의 52원·60원을 판매단가로 해석한 결과이다. 원문 표제는 '원가'이고 판매단가라는 별도 조건은 없으므로, 표제를 문자 그대로 읽을 때 매출이익을 알 수 없다는 판단을 단순한 원가 혼동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계속기록법인지 확인하고 거래를 날짜순으로 처리한다. 판매 시에는 기존 평균단가로 재고수량과 금액을 줄이고, 매입 시에는 남은 재고와 새 매입분으로 평균단가를 다시 구한다. 마지막으로 판매단가로 매출액을 계산한 뒤 매출원가를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계속기록법 + 가중평균법 = 이동평균법. 매입 때 평균 갱신, 판매 때 기존 평균 적용. 매출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영업용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을 개시하여 20×1년 9월 30일에 완공하였다. 동 창고의 건설과 관련된 공사비와 차입금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은?

<공사비 지출액>

20×1년 1월 1일 ₩1,000

20×1년 4월 1일 500

<차입금 내역>

(단, 차입금의 이자는 1년 후급조건이며, 월할 계산한다.)

차입금	차입기간	차입금	이자율
특정	20×1.1.1~20×1.10.31	₩400	연 4%
일반	20×0.8.1~20×2.12.31	600	연 5%

① ₩30

② ₩35

③ ₩42

④ ₩47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9개월의 특정차입원가 12원과 일반차입원가를 합한다. 일반차입분은 계산상 35원이지만 **당기 실제 발생액 30원을 한도**로 하므로 총 자본화액은 42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창고는 1월 1일 건설을 시작하여 9월 30일 완공되므로 자본화 대상 건설기간은 **9개월**이다. 연이율을 적용하므로 지출 기간은 12개월을 기준으로 월할한다.

특정차입금은 400원, 연 4%이며 건설 시작부터 차입되어 있다. 1월 지출이 1,000원이므로 전액을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며, 일시 운용수익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정차입원가의 자본화액은 $400 \times 0.04 \times \frac{9}{12} = 12$원이다. 차입은 10월 말까지 이어지지만 완공 후 10월 이자는 이 계산에 넣지 않는다.

공사비의 연평균지출액은 $1{,}000 \times \frac{9}{12} + 500 \times \frac{6}{12} = 1{,}000$원이다. 여기서 특정차입금 사용분 $400 \times \frac{9}{12} = 300$원을 빼면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할 금액은 700원이다.

일반차입금은 연 5% 한 종류이므로 산정액은 $700 \times 0.05 = 35$원이다. 그러나 자본화액은 **당기에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일반차입금 600원은 20×1년 내내 존재하므로 당기 원가 한도는 $600 \times 0.05 = 30$원이다. 따라서 일반차입원가 자본화액은 35원과 30원 중 작은 30원이다.

총 자본화액은 특정차입분 12원과 일반차입분 30원을 합한 42원으로, ③에 해당한다. 47원은 일반차입금 한도를 적용하지 않은 합계이고, 30원·35원은 특정차입분을 포함한 최종 자본화액이 아니다.

NoteBase

문 11. ㈜한국은 단일 상품을 매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기말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단, 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장부수량	실지재고수량	단위당 취득원가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100개	96개	₩500	₩480
추가자료1) 기초재고 ₩45,000, 당기매입 ₩955,000 추가자료2) 재고자산 감모 중 75%는 정상적인 감모로 판단			

① ₩950,000

② ₩951,500

③ ₩953,420

④ ₩953,92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감모·평가손실 반영 전 매출원가 950,000원에 **정상 감모손실 1,500원과 평가손실 1,920원**을 더하면 953,420원이다. 비정상 감모손실 500원은 매출원가에서 제외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매출가능상품의 원가에서 장부상 기말재고 원가를 차감한 뒤, 문제의 조건에 따라 정상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더한다. 비정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가능상품 원가는 기초재고 45,000원과 당기매입 955,000원의 합계인 1,000,000원이다. 장부상 기말재고 원가는 100개 × 500원 = 50,000원이므로, 감모·평가손실 반영 전 매출원가는 1,000,000원 − 50,000원 = 950,000원이다.

감모수량은 장부수량 100개에서 실지재고수량 96개를 뺀 4개이다. 감모손실은 4개 × 500원 = 2,000원이며, 이 중 정상 감모손실은 2,000원 × 75% = 1,500원이다. 나머지 500원은 비정상 감모손실로 별도 비용 처리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실제 남아 있는 96개에 대해 계산한다. 단위당 취득원가 500원이 순실현가능가치 480원보다 20원 높으므로, 평가손실은 96개 × 20원 = 1,920원이다. 이미 없어진 감모수량에 평가손실을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950,000원 + 1,500원 + 1,920원 = 953,420원이며, 이는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증가 혹은 감소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단,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간접법으로 산출한다.)

감가상각비	₩7,000	토지처분이익	₩5,000
사채상환손실	2,100	차입금 상환	30,000
기계장치의 처분	50,000	대손충당금 환입	100
매출채권 증가	30,000	재고자산 감소	40,000
매입채무 감소	20,000	미지급비용 증가	7,000

① ₩1,000 감소

② ₩1,000 증가

③ ₩2,000 감소

④ ₩2,000 증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간접법 조정의 가산액은 56,100원, 차감액은 55,100원으로 순조정액은 1,000원이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보다 **1,000원 증가**한 11,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비현금 손익, 투자·재무활동 관련 손익,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을 조정한다. 표의 모든 항목을 현금흐름으로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이익에 이미 반영된 손익과 실제 현금흐름의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감가상각비 7,000원: 당기순이익에서는 비용으로 차감되었지만 당기의 현금유출은 아니므로 **7,000원을 가산**한다.

사채상환손실 2,100원: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 손실이지만 사채 상환은 재무활동과 관련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 계산에서는 그 손실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2,100원을 가산**한다.

기계장치 처분 50,000원: 기계장치 처분에 따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에 속한다. 제시된 처분금액 자체를 영업활동 조정액에 넣거나 처분이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매출채권 증가 30,000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중 아직 회수하지 않은 부분이 늘어난 것이므로 **30,000원을 차감**한다.

매입채무 감소 20,000원: 외상대금의 지급으로 영업 관련 채무가 줄어 현금유출이 발생하므로 **20,000원을 차감**한다.

토지처분이익 5,000원: 당기순이익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토지 처분은 투자활동에 속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그 이익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5,000원을 차감**한다.

차입금 상환 30,000원: 차입금 원금 상환은 **재무활동 현금유출**이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손충당금 환입 100원: 비용 감소 등의 형태로 당기순이익을 높였지만 현금유입을 동반한 것은 아니므로 **100원을 차감**한다.

재고자산 감소 40,000원: 비용으로 반영된 재고 중 당기에 새로 현금을 지출해 확보하지 않은 부분을 조정하므로 **40,000원을 가산**한다.

미지급비용 증가 7,000원: 비용은 인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늘었으므로 **7,000원을 가산**한다.

가산액은 7,000 + 2,100 + 40,000 + 7,000 = 56,100원이고, 차감액은 5,000 + 100 + 30,000 + 20,000 = 55,100원이다. 순조정액은 56,100 − 55,100 = 1,000원이다.

NoteBase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0,000 + 1,000 = 11,000원이다. 문제는 현금흐름 총액이 아니라 당기순이익과의 차이를 묻고 있으므로, 1,000원 증가인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재무분석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유동비율은? (단, 기초 재고자산과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동일하다.)

매출액 ₩5,000
매출총이익률 30%
재고자산회전율 5회
당좌비율 130%
유동자산 ₩2,000

① 200%
② 180%
③ 150%
④ 13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매출원가 3,500원과 회전율 5회에서 재고자산은 700원이다. 당좌자산 1,300원과 당좌비율 130%에서 유동부채는 1,000원이므로 **유동비율은 200%**, 정답은 ①이다.

계산 과정

매출총이익률이 30%이므로 매출원가율은 70%이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5000 \times (1 - 0.30) = 3500$원이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평균 재고자산은 3500/5 = 700원이고, 기초와 기말 재고자산이 같으므로 기말 재고자산도 700원이다.

문제에서 주어진 재고자산을 유동자산에서 제외하면 당좌자산은 $2000 - 700 = 1300$원이다. 당좌비율이 (당좌자산/유동부채)×100=130\%이므로 유동부채는 1300/1.30 = 1000원이다.

따라서 유동비율은 $(2000/1000) \times 100 = 200\%$이며 정답은 ①이다. 분자와 분모가 모두 원 단위라 금액 단위는 상쇄되고 백분율만 남는다. 재고자산회전율 계산에서 매출원가 대신 매출액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NoteBase

문 15. ㈜한국의 20×1년 12월 31일 현재 당좌예금 잔액은 ₩300,000이고 당좌예금과 관련한 다음의 사건이 확인되었다. 아래의 사건들을 조정하기 전에 ㈜한국이 거래은행에서 받은 20×1년 12월 31일자 예금잔액은?

- 12월 26일 발행된 ₩40,000의 수표가 은행에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 12월 30일 거래처인 ㈜대한은 상품 구입대금 ₩60,000을 회사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나,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았다.
- 12월 31일 회사는 현금 ₩20,000을 당좌예입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입금처리되지 않았다.
- 12월 31일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은행수수료 ₩20,000에 대해 회사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① ₩320,000

② ₩340,000

③ ₩360,000

④ ₩38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회사의 미기록 입금과 수수료를 반영하면 조정 후 잔액은 340,000원이다. 은행 측은 미제시수표 40,000원을 빼고 미기입예금 20,000원을 더해야 하므로, **조정 전 은행 잔액은 36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구할 금액은 20×1년 12월 31일의 조정 후 잔액이 아니라 **조정 전 은행 측 예금잔액**이다. 회사와 은행의 미반영 항목을 각각 조정하면 두 잔액이 같아져야 한다.

미제시수표 40,000원: 회사는 12월 26일 수표 발행으로 당좌예금을 이미 감소시켰지만 은행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정할 때 은행 잔액에서 40,000원을 차감한다.

거래처 입금 60,000원: 12월 30일 ㈜대한이 입금한 금액은 은행에는 반영되었으나 회사는 통보받지 못해 기록하지 않았다. 회사 장부 잔액에 60,000원을 가산한다.

미기입예금 20,000원: 회사가 12월 31일 예입한 현금은 회사 장부에는 반영되었으나 은행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은행 잔액에 20,000원을 가산한다.

은행수수료 20,000원: 은행이 12월 31일 인출했으나 회사가 미처리한 비용이므로 회사 장부 잔액에서 20,000원을 차감한다.

회사 측 조정 후 잔액은 300,000 + 60,000 − 20,000 = 340,000원이다. 조정 전 은행 잔액을 B라고 하면 $B - 40{,}000 + 20{,}000 = 340{,}000$이므로 B = 360,000원이다.

따라서 거래은행에서 받은 조정 전 예금잔액은 360,000원으로,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사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의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사채를 할인발행하게 된다.

② 사채가 할증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는 경우 기간경과에 따라 매기 인식하는 할증발행차금의 상각액은 증가한다.

③ 사채를 할증발행할 때 사채발행비가 발생한다면 유효이자율은 사채발행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보다 낮다.

④ 사채가 할증발행된다면 기간경과에 따라 매기 인식하는 유효이자는 감소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사채발행비가 발생하면 같은 미래 상환액에 비해 **발행자의 순수취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실질적인 조달비용을 나타내는 **유효이자율은 상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자만으로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발행가액이 액면금액보다 낮아지는 **할인발행**이 이루어진다.

② O: 일정한 액면이자를 지급하는 할증발행 사채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면 장부금액이 점차 감소한다. 유효이자비용도 감소하므로, 일정한 현금이자에서 유효이자비용을 뺀 **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은 증가**한다.

③ X: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사채의 직접 관련 발행비는 발행자의 최초 순수취액을 줄인다. 미래에 지급할 약정이자와 원금은 그대로인데 현재 받은 순액이 줄어들므로, 이를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은 높아진다**. 낮아진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④ O: 할증발행 사채의 기초 장부금액은 상각할수록 액면금액 쪽으로 감소한다. 유효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일정한 유효이자율을 곱하므로 매기 감소한다. 이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액면이자까지 감소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7.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② 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③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포함하되,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지출이며,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있는 지출이어야 한다.

④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구조조정충당부채는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직접지출**만 포함하며, 그 지출은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어야 한다**. 계속적인 영업을 위한 재교육이나 마케팅 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충당부채는 지급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인식 요건을 갖춘 현재의무이다.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주석으로 공시한다.

① O: 충당부채는 최초 추정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보고기간 말의 최선의 추정치**로 조정한다. 자원 유출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해당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② O: 연대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기업이 직접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신뢰성 있는 추정 등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제삼자 부담 예상분까지 전액을 기업 자신의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③ X: 구조조정충당부채에는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발생하는 직접지출** 중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만 포함한다. 간접비용까지 포함한다는 부분과 계속적인 활동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모두 잘못되었다.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의 재교육·재배치, 마케팅, 새로운 시스템과 판매망에 대한 투자는 향후 영업활동을 위한 지출이므로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O: 과거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단순한 미래 지출 계획만으로는 현재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할 지출의 범위를 잘못 설명한 ③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18.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의 경우 자본금은 증가한다.

② 주식배당과 주식분할의 경우 자본잉여금은 변하지 않는다.

③ 주식배당의 경우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지만 주식분할의 경우 이익잉여금은 변하지 않는다.

④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의 경우 발행주식수가 증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무상증자·주식배당·주식분할과 달리 **주식병합은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모두 발행주식수가 증가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여 신주를 발행한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자본금과 발행주식수가 증가**한다. 외부에서 현금이 새로 들어오는 거래는 아니므로 이 대체 자체로 자본총계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② (O)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므로 **자본잉여금은 변하지 않는다.** 주식분할도 주식 수와 주당 액면금액을 반대 방향으로 바꿀 뿐 자본잉여금을 변동시키지 않는다.

③ (O)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므로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반면 주식분할은 자본 항목 간 대체 없이 주식 단위를 나누는 것이어서 이익잉여금이 변하지 않는다.

④ (X) 무상증자·주식배당·주식분할은 발행주식수를 늘리지만, **주식병합은 여러 주를 하나로 합쳐 발행주식수를 줄인다.** 예를 들어 5주를 1주로 병합하면 주식 수는 5분의 1이 된다. 단순한 액면병합에서는 주당 액면금액을 같은 비율로 높여 자본금을 유지하며, 감자를 수반하는 병합과는 구별한다.

NoteBase

문 19. ㈜한국은 ㈜대한이 20×1년 1월 1일에 발행한 3년 후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액면가액 ₩1,000,000)를 동일자에 ₩95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표시이자율은 8%(이자는 매년 말 후급)이며, 유효이자율은 연 10%라고 가정한다. 동 금융자산의 20×1년 말 이자수령 후 공정가치는 ₩970,000이었다. 동 금융자산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970,000이다.

②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965,000이다.

③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20×1년 당기순이익은 ₩100,000 증가한다.

④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20×1년 당기순이익은 ₩80,000 증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수령 이자가 아니라 **기초 장부가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950,000원 × 10% = 95,000원이며, 현금으로 받은 80,000원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매년 받는 이자는 액면가액 1,000,000원 × 표시이자율 8% = 80,000원이다. 상각후원가 측정에서는 유효이자율로 이자수익을 계산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에서는 기말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문제에서 제시한 취득가액과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① O: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표시한다. 이자수령 후 공정가치가 970,000원으로 주어졌으므로, 기말 장부가액도 970,000원이다.

② O: 상각후원가 측정 시 이자수익은 950,000원 × 10% = 95,000원이다. 기말 장부가액은 기초 950,000원에 이자수익 95,000원을 더하고 수령 이자 80,000원을 빼므로 965,000원이다. 현금 이자보다 큰 이자수익 15,000원만큼 할인액이 상각되어 장부가액이 증가한다.

③ O: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시 당기손익의 총증가액은 현금 이자 80,000원에 취득 시점 대비 이자수령 후 공정가치 증가액 970,000원 − 950,000원 = 20,000원을 더한 100,000원이다. 이자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더라도 이자와 평가손익을 합친 총액은 같다.

④ X: 상각후원가 측정 시 당기순이익은 유효이자수익인 95,000원만큼 증가한다. 80,000원은 실제 현금 수령액일 뿐이다. 상각후원가와 기말 공정가치 970,000원의 차이는 이 분류에서 공정가치 평가이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0. ㈜한국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판매한 제품에 대해 1년간 제품보증을 해주고 있다. 판매한 제품 중 10%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 제품보증활동에 대한 수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제품보증비용을 인식하며, 모든 보증활동은 현금지출로 이루어진다. 개당 보증비용은 20×1년 말과 20×2년 말에 각각 ₩1,000과 ₩1,500으로 추정되었다. 판매량과 보증비용 지출액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제품보증충당부채는?

연도	판매량	보증비용 지출액
20×1년	800개	₩20,000
20×2년	1,000개	₩30,000(전기 판매분) ₩40,000(당기 판매분)

① ₩60,000

② ₩80,000

③ ₩110,000

④ ₩15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보증기간이 1년이므로 당기말에는 **당기 판매분의 남은 보증의무**를 계산한다. 예상 보증비용 150,000원에서 당기 판매분에 이미 지출한 40,000원을 빼면 11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이 문항은 별도의 보증서비스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제품보증이므로, 남아 있는 보증의무의 예상 지출액을 충당부채로 표시한다. 당기 보증비용 총액이나 이미 지급한 현금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다.

20×1년 판매분의 최초 예상 보증비용은 800 × 10% × 1,000 = 80,000원이다. 그해 지출 20,000원을 뺀 기말 충당부채는 60,000원이었다. 20×2년에 전기 판매분에 대해 30,000원을 지급하고 나면 30,000원이 남지만, **보증기간이 1년이므로 전기 판매분의 보증은 20×2년 말에 종료**된다. 따라서 남은 금액을 환입하며 당기말 부채에 이월하지 않는다.

20×2년 판매분은 1,000개이고 예상 보증요청률은 10%이다. 당기말의 개당 추정 보증비용 1,500원을 적용하면 총 예상액은 1,000 × 10% × 1,500 = 150,000원이다.

이 중 당기 판매분에 대해 이미 지출한 40,000원을 차감하면 미이행 보증의무는 150,000 − 40,000 = 110,000원이다. 전기 판매분에 지급한 30,000원까지 다시 차감하면 서로 다른 판매연도의 의무를 섞게 된다.

따라서 20×2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는 110,000원으로 ③이다. 60,000원은 전기말 잔액, 80,000원은 전기 판매분 지출까지 잘못 차감한 금액, 150,000원은 당기 판매분 지출을 차감하기 전의 추정액이다.

NoteBase

문 21. 다음의 자본거래 중 당기의 자본총계를 감소시키는 것은?

① 전기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당기에 소각하는 경우

② 전기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당기에 취득원가 이하로 처분하는 경우

③ 당기에 신규 주식을 액면가치 이하로 할인 발행하는 경우

④ 당기에 자기주식을 발행가액으로 취득하고 원가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취득원가만큼 자본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당기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대가를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당기 자본총계가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전기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이미 취득원가만큼 자본총계가 감소하였다. 당기에 이를 소각하면 자기주식 차감항목과 관련 자본항목을 정리할 뿐 추가 자산 유출이 없으므로 **당기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② X: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받은 대가만큼 자산과 자본총계가 증가한다. 취득원가보다 낮게 팔더라도 자기주식 차감항목을 취득원가만큼 제거하고 차액을 자본에서 처리하므로 순자본 증가액은 처분대가이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이라는 명칭만으로 자본총계가 감소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③ X: 신주를 할인발행하면 자본금은 액면금액만큼 증가하고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다. 그 결과 자본총계는 **실제 납입된 발행대금만큼 증가**한다. 액면가액보다 낮다는 것은 증가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는 뜻이지 자본총계가 감소한다는 뜻이 아니다.

④ O: 원가법에서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니라 **취득원가로 자본에서 차감**한다. 당기에 발행가액을 지급하여 취득하면 현금이 감소하고 같은 금액의 자기주식 차감항목이 생기므로 당기 자본총계가 감소한다.

NoteBase

문 22.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④ 오류수정은 회계추정치 변경과 구별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전기오류는 원칙적으로 소급재작성하지만, 기간별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범위에는 예외**가 있다. 수정은 실무적으로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부터 반영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회계정책은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기준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변경한다. 자발적인 변경은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임의로 바꾸는 것과 구별된다.

② O: 과거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적합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거래에 적용하던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거래의 성격이 달라 다른 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X: 중요한 전기오류는 원칙적으로 비교정보를 소급재작성하여 수정하지만, **기간별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범위**에는 예외가 있다. 기간별 영향을 결정할 수 없다면 소급재작성이 가능한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 잔액을 수정하고, 당기 초 누적효과도 결정할 수 없다면 실무적으로 가능한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수정한다. 따라서 실무적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완전한 소급재작성을 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④ O: 오류수정은 과거 재무제표 작성 시 이용할 수 있었던 신뢰성 있는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사용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상황 변화에 따른 추정의 갱신**이므로 과거의 잘못을 뜻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새롭게 확인된 사용 상태에 따라 내용연수를 조정하는 것은 추정 변경으로, 그 효과를 당기와 필요한 미래 기간에 반영한다.

따라서 소급재작성의 실무적 불가능성에 대한 예외를 부정한 ③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23. ㈜한국의 20×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이다. 20×1년 기초 이연법인세부채는 ₩2,000이며, 20×1년 말 세무조정 결과 장래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000이다.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은 없으며,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의 인식조건은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법인세율은 매년 20%로 일정하고 20×1년 법인세부담액이 ₩15,000일 경우 ㈜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과 20×1년 말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① 당기순이익: ₩33,000,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이연법인세자산 ₩4,000

② 당기순이익: ₩33,000,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이연법인세부채 ₩4,000

③ 당기순이익: ₩39,000,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이연법인세자산 ₩4,000

④ 당기순이익: ₩39,000,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이연법인세부채 ₩4,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가산할 일시적차이 20,000원에는 **이연법인세부채 4,000원**을 인식한다. 부채의 당기 증가액 2,000원을 법인세부담액 15,000원에 더하면 법인세비용은 17,000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3,000원이다.

계산 과정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미래에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세를 더 부담하게 하는 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킨다. 기말 잔액과 당기 증감액을 구별하여 법인세비용을 계산한다.

기말 가산할 일시적차이 20,000원에 적용될 세율은 20%이다. 따라서 기말 이연법인세부채는 20,000원 × 20% = 4,000원이다. 이는 이연법인세자산이 아니다.

기초 이연법인세부채가 2,000원이었으므로 당기 부채 증가액은 4,000원 − 2,000원 = 2,000원이다. 이 증가액은 당기의 이연법인세비용이다.

법인세비용은 당기 법인세부담액 15,000원에 이연법인세비용 2,000원을 더한 17,000원이다. 기말 부채 전체 4,000원을 다시 비용에 더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0,000원 − 법인세비용 17,000원 = 33,000원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33,000원과 기말 이연법인세부채 4,000원의 조합인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4. 주당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분자)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분모)로 나누어 계산한다.

② 기본주당이익 정보의 목적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지배기업의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③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는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한다.

④ 잠재적보통주는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당계속영업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주당계속영업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취급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희석은 보통주 전환을 가정할 때 **주당계속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주당계속영업손실이 증가**하는 효과이다. 이를 반대로 설명한 ④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연결실체 전체의 이익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비지배지분과 우선주 귀속분 등 필요한 조정을 반영한 보통주 귀속손익을 분자로 사용한다.

② (O) 기본주당이익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 중 **보통주 한 주에 해당하는 몫**을 나타내기 위한 정보이다. 보통주의 시장가격이나 한 주당 현금배당액을 직접 측정하는 지표는 아니다.

③ (O) 분모는 기말 발행주식수만이 아니라 **기간 중 유통된 보통주식수의 가중평균**이다. 기간 중 발행·취득 등으로 유통주식수가 바뀌면 해당 주식이 실제 유통된 기간을 반영하고, 자기주식은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한다.

④ (X)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 등을 가정할 때 **주당계속영업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주당계속영업손실을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반대로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은 반희석효과이므로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손실의 증가는 음수로 표시한 주당손익이 더 작아지는 방향을 뜻한다.

NoteBase

문 25. (주)한국은 20×1년 초에 액면금액 ₩10,000인 상품권 1,000매를 1매당 ₩8,000에 발행하였다. 동 상품권은 액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다. (주)한국은 20×1년 말까지 회수된 600매에 대해 상품을 인도하고, 잔액 ₩1,0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이 상품권과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게 될 수익은?

① ₩3,800,000

② ₩4,800,000

③ ₩7,000,000

④ ₩8,00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회수된 600매의 실제 발행수취액은 4,800,000원이다. 여기서 **현금으로 환급한 1,000,000원을 제외**한 3,800,000원이 상품 인도에 따른 수익이다.

계산 과정

상품권을 발행할 때 받은 현금은 상품을 인도하기 전까지 선수금 성격의 계약부채이다. 실제 수취액은 1,000매 × 8,000원 = 8,000,000원이며, **액면금액 10,000원이 곧 매출액은 아니다**.

당기에 회수된 600매에 대응하는 최초 수취액은 600매 × 8,000원 = 4,800,000원이다. 이 상품권에 대한 의무는 상품 인도와 잔액 현금환급으로 이행된다.

회수분에 대해 돌려준 현금 1,000,000원은 상품을 인도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수익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상품 인도에 따른 수익은 4,800,000 − 1,000,000 = 3,800,000원이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400매의 수취액 3,200,000원은 남아 있는 의무에 대응한다. 만기가 2년이고 미사용 권리의 예상 소멸을 수익으로 인식할 별도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연말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금액을 수익에 추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년 인식할 수익은 3,800,000원으로 ①이다. 4,800,000원은 환급 전 회수분 수취액이고, 7,000,000원은 전체 발행수취액에서 환급액만 뺀 금액이며, 8,000,000원은 전체 발행수취액이다.

NoteBase

문 26. ㈜한국은 20×1년 기말재고자산을 ₩30,000만큼 과소계상하였고, 20×2년 기말재고자산을 ₩20,000만큼 과대계상한 것을 20×2년 말 장부마감 전에 발견하였다. 20×2년 오류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100,000이라면, 오류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① ₩50,000

② ₩80,000

③ ₩120,000

④ ₩15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전기 말 재고 과소계상은 당기 기초재고를 작게 만들고, 당기 말 재고 과대계상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할 금액을 크게 만든다. 두 오류가 모두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므로 100,000원에서 30,000원과 20,000원을 빼면 50,000원이다.

계산 과정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기초재고를 적게 기록하거나 기말재고를 많이 기록하면 모두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20×2년 기초재고자산으로 이어진다. 전기 말의 30,000원 과소계상 때문에 20×2년 기초재고도 30,000원 과소계상되어, 20×2년 매출원가가 30,000원 작고 당기순이익이 30,000원 크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바로잡으면 당기순이익은 30,000원 감소한다.

20×2년 기말재고자산 20,000원 과대계상은 매출원가 계산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20,000원 크게 만든다. 그 결과 매출원가는 20,000원 과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20,000원 과대계상되어 있다. 이를 바로잡으면 당기순이익은 추가로 20,000원 감소한다.

따라서 오류수정 후 20×2년 당기순이익은 100,000원 − 30,000원 − 20,000원 = 50,000원이며, ①에 해당한다. 두 재고 오류는 기록 방향은 반대이지만 이 해의 이익에는 모두 과대계상 효과를 주므로 서로 상계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7. ㈜한국은 보조부문인 동력부문과 수선부문, 그리고 제조부문인 용접부문과 조립부문을 운영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동력부문의 부문원가 배분기준은 전력소비량이며, 수선부문의 부문원가 배분기준은 수선시간이다. ㈜한국은 단계배분법을 이용해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데, 수선부문부터 배분한다. 이때 제조부문인 용접부문에 배분되는 보조부문원가는?

구분	보조부문		제조부문	
	동력부문	수선부문	용접부문	조립부문
부문원가	₩1,500	₩2,000	₩2,500	₩1,700
전력소비량	-	20kw	60kw	40kw
수선시간	30시간	-	50시간	20시간

① ₩2,100

② ₩2,160

③ ₩2,260

④ ₩2,3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수선부문을 먼저 배분하면 동력부문에 600원이 더해져 동력원가는 2,100원이 된다. 이후 **수선부문을 제외하고** 동력원가를 배분하므로 용접부문은 수선원가 1,000원과 동력원가 1,260원, 합계 2,260원을 부담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단계배분법은 먼저 배분한 보조부문에 뒤의 보조부문 원가를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수선부문부터 배분**하므로 수선원가는 동력·용접·조립부문에 배분하고, 이후 동력원가는 용접·조립부문에만 배분한다.

수선부문 원가 2,000원은 수선시간 30시간, 50시간, 20시간의 비율로 배분한다. 총 배분기준은 30 + 50 + 20 = 100시간이다. 동력부문 배분액은 $2{,}000 \times \frac{30}{100} = 600$원이고, 용접부문 배분액은 $2{,}000 \times \frac{50}{100} = 1{,}000$원이다. 조립부문에는 $2{,}000 \times \frac{20}{100} = 400$원이 배분된다.

동력부문의 배분대상 원가는 자체 원가 1,500원에 수선부문에서 받은 600원을 더한 2,100원이다. 수선부문에 제공한 전력 20kw는 이미 배분이 끝난 부문에 대한 용역이므로 **배분기준에서 제외**한다. 용접 60kw와 조립 40kw의 합계 100kw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용접부문에 배분되는 동력원가는 $2{,}100 \times \frac{60}{60+40} = 1{,}260$원이다. 따라서 용접부문이 받는 보조부문원가 합계는 수선원가 1,000원과 동력원가 1,260원을 합한 2,260원이다. 용접부문의 자체 원가 2,500원은 구하는 보조부문 배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접부문에 배분되는 보조부문원가는 2,260원이므로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8. ㈜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원가요소별 비례배분법으로 배분한다. 당기에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에 비해 배부액이 ₩1,000만큼 과소배부되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배분한 후 제품의 총 원가는?

구분	재공품	제품	매출원가
직접재료원가	₩ 650	₩1,500	₩ 4,600
직접노무원가	1,000	1,650	5,600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차이배분전)	2,400	3,600	6,000
합계	₩4,050	₩6,750	₩16,200

① ₩7,000

② ₩7,050

③ ₩7,100

④ ₩7,15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제품에 포함된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의 비중으로 과소배부액을 나누면 $1{,}000 \times \frac{3{,}600}{12{,}000} = 300$원이다.
과소배부이므로 기존 제품 원가에 **300원을 가산**하여 총원가는 7,050원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 뒤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를 조정한다. 원가요소별 비례배분법은 각 계정의 총원가가 아니라 **그 계정에 포함된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의 비율로 차이를 배분한다.

배분 기준액: 표의 차이 배분 전 제조간접원가는 재공품 2,400원, 제품 3,600원, 매출원가 6,000원이다. 합계는 2,400 + 3,600 + 6,000 = 12,000원이다.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이 배분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품에 배분할 차이: 제조간접원가가 실제 발생액보다 1,000원 적게 배부되었으므로 **과소배부액을 원가에 가산**한다. 제품에 귀속되는 금액은 $1{,}000 \times \frac{3{,}600}{12{,}000} = 300$원이다.

제품 총원가의 조정: 차이 배분 전 제품 원가는 직접재료원가 1,500원, 직접노무원가 1,650원, 제조간접원가 3,600원의 합계인 6,750원이다. 제품에 배분한 300원을 더하면 6,750 + 300 = 7,050원이다.

따라서 차이 배분 후 제품의 총원가는 7,050원으로 ②와 일치한다. 제조간접원가 3,600원만 조정한 3,900원은 제품의 총원가가 아니라 제조간접원가 부분이다.

NoteBase

문 29. ㈜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 기초재공품의 수량은 30개이며, 완성도는 30%이다.
- 당기 완성품의 수량은 600개이다.
- 기말재공품의 수량은 50개이며, 완성도는 20%이다.
-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원재료원가	가공원가
기초재공품원가	₩10,000	₩ 6,000
당기발생원가	62,000	48,080

① ₩5,500

② ₩5,600

③ ₩5,700

④ ₩5,8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의 당기 환산량은 재료 620개, 가공 601개이고 단가는 각각 100원, 80원이다. 기말재공품원가는 $50 \times 100 + 10 \times 80 = 5800$**원**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선입선출법은 **당기에 수행한 작업의 완성품환산량과 당기 발생원가**로 단가를 계산한다. 기초재공품 30개를 먼저 완성하므로 당기 착수·완성품은 600 − 30 = 570개이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에 추가 투입할 재료는 없다. 재료원가의 당기 완성품환산량은 0 + 570 + 50 = 620개이다. 가공원가는 기초재공품의 미완성 부분 30 × (1 − 0.30) = 21개, 당기 착수·완성품 570개, 기말재공품 50 × 0.20 = 10개를 합쳐 21 + 570 + 10 = 601개이다.

당기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재료원가 62000/620 = 100원, 가공원가 48080/601 = 80원이다. 기초재공품원가인 재료 10,000원과 가공 6,000원은 당기 단가의 분자에 더하지 않는다.

기말재공품 50개는 재료가 100% 투입되고 가공은 20% 진행되었다. 따라서 기말 원가는 50 × 100 + (50 × 0.20) × 80 = 5000 + 800 = 5800원이다. **기말재공품원가는 5,800원**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NoteBase

문 30. (주)한국은 단일규격의 LED TV를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생산공정 초기에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공정의 50%와 100% 시점에서 품질검사를 수행하며, 품질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5%를 정상공손으로 처리한다. 기초재공품(완성도 20%)은 50개, 당기 생산착수량은 300개, 당기 완성품 수량은 260개, 기말재공품(완성도 60%)은 60개이다. 이때 정상공손품 수량은?

① 22개

② 24개

③ 26개

④ 29개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말재공품은 완성도 60%이므로 **50% 검사는 통과했지만 100% 검사는 통과하지 않았다**. 정상공손은 50% 검사에서 320개 × 5% = 16개, 100% 검사에서 260개 × 5% = 13개로, 합계 29개이다.

계산 과정

정상공손 허용량은 각 검사시점까지 도달한 합격품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완성품은 두 검사시점을 모두 통과하지만, 완성도 60%인 기말재공품은 50% 검사만 통과했다. 기초재공품은 완성도 20%이므로 전기에 통과한 검사가 없어 당기 기준수량에서 차감할 검사통과 수량이 없다.

50% 검사시점: 정상공손 계산의 기준이 되는 합격품은 당기 완성품 260개와 기말재공품 60개이다. 따라서 정상공손 수량은 (260개 + 60개) × 5% = 16개이다.

100% 검사시점: 기말재공품은 아직 이 검사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제외한다. 당기 완성품 260개만 기준에 포함되므로 정상공손 수량은 260개 × 5% = 13개이다.

두 검사시점의 정상공손을 합하면 16개 + 13개 = 29개이다. 한편 총공손 수량은 기초재공품 50개 + 당기 착수량 300개 − 완성품 260개 − 기말재공품 60개 = 30개이므로, 정상공손 29개를 넘는 1개는 비정상공손이다.

원재료의 초기 투입과 가공원가의 균등 발생은 원가 배분이나 완성품환산량 계산에 쓰이는 조건이다. 여기서는 검사시점 통과 여부와 합격품 수량으로 정상공손 수량을 구하며, 계산 결과 29개는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부원가계산에서는 영업이익이 판매량뿐만 아니라 생산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생산량이 증가하면 비용화되지 않는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증가하므로 경영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유인을 갖게 된다.

② 단기적으로 고정원가는 지출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경영자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가가 변화하는 변동원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변동원가계산에서는 변동원가와 공헌이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단기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유용하다.

③ 초변동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 외에는 기간원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제조간접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④ 초변동원가계산에서는 경영자가 재고자산을 최대로 보유하도록 유도하여 생산량이 불필요하게 증가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만 재고에 포함하고 나머지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고정제조원가 등을 재고로 넘기려는 **과잉생산 유인을 줄이는 방식**이지 재고를 최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도 제품원가에 포함한다. 판매량이 같을 때 생산을 늘려 기말재고가 증가하면 고정제조간접원가 일부가 재고에 남아 당기 비용에서 이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매 증가 없이도 보고이익이 높아질 유인**이 생긴다. 생산량 증가가 언제나 실질적인 수익성 향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변동원가계산은 매출에서 변동원가를 뺀 공헌이익을 구분해 보여 준다. 관련 범위 안에서 단기 고정원가 총액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판매가 고정원가 회수와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파악하기 쉽다. 다만 의사결정으로 회피하거나 새로 발생하는 고정원가가 있다면 그것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③ O: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처리하고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 등 나머지를 기간원가로 처리한다. 따라서 재고자산 측정과 손익계산을 위해 제조간접원가를 변동·고정으로 나누어 제품에 배부할 필요가 없다.

④ X: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 이외의 제조원가를 생산량 증가만으로 재고에 이연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재고를 최대한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생산으로 이익을 높이려는 유인을 줄이고 재고 축소**를 지향한다. 재고가 많다는 사실 자체로 판매 성과가 높게 평가되는 구조가 아니다.

NoteBase

문 32. ㈜한국은 휴대전화 1대를 생산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다음과 같다고 추정했다. ㈜한국의 제품생산에 95%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누적 생산량이 2대인 주문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매가격은? (단, 고정제조간접원가 및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직접재료원가 ₩6,000
직접노무원가 2,000
변동제조간접원가 4,000
직접노무시간 2시간

① ₩23,200
② ₩23,400
③ ₩23,600
④ ₩23,8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누적 2대의 평균 작업시간은 1.9시간, 총 작업시간은 3.8시간이다. 재료원가는 그대로 두고 **작업시간에 비례하는 원가에 학습효과**를 반영하면, 2대 주문의 총원가는 23,4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95% 누적평균시간 학습모형은 누적 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누적 생산량 전체의 단위당 평균 작업시간**이 종전의 95%가 된다는 뜻이다. 두 번째 제품 한 대의 작업시간이 첫 제품의 95%가 된다는 모형과 다르다.

작업시간: 첫 1대의 직접노무시간은 2시간이다. 누적 2대를 생산할 때 단위당 평균시간은 $2 \times 0.95 = 1.9$시간이고, 2대의 총 작업시간은 $1.9 \times 2 = 3.8$시간이다.

직접재료원가: 학습효과는 작업시간에 적용하므로 단위당 재료원가 6,000원을 줄이지 않는다. 2대의 직접재료원가는 $6{,}000 \times 2 = 12{,}000$원이다.

직접노무원가: 시간당 임률은 $\frac{2{,}000}{2} = 1{,}000$원이다. 따라서 2대의 직접노무원가는 $3.8 \times 1{,}000 = 3{,}800$원이다.

변동제조간접원가: 이 문제에서는 작업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제조간접원가로 계산한다. 시간당 원가는 $\frac{4{,}000}{2} = 2{,}000$원이므로 2대에 배부할 금액은 $3.8 \times 2{,}000 = 7{,}600$원이다. **시간에 비례하는 노무원가와 변동제조간접원가**에 학습효과를 반영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와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2대 주문의 원가는 $12{,}000 + 3{,}800 + 7{,}600 = 23{,}400$원이다. 이를 회수하는 주문 전체의 최소 판매가격은 23,400원으로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3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안전한계율은?

매출액 ₩400,000
변동원가 280,000
고정원가 60,000

① 30%
② 40%
③ 50%
④ 6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헌이익률은 30%이므로 고정원가 60,000원을 회수하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00,000원이다. 현재 매출액 400,000원 중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200,000원이 차지하는 **안전한계율은 50%**이다.

계산 과정

안전한계율은 현재 매출액 중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비율이다. 원가·조업도·이익 분석에서 변동원가율과 고정원가가 일정하다는 전제로,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할 때까지 손실 없이 버틸 수 있는지 나타낸다.

공헌이익은 매출액 400,000원 − 변동원가 280,000원 = 120,000원이다. 매출액 1원당 고정원가 회수와 이익에 기여하는 비율인 공헌이익률은 $\frac{120{,}000}{400{,}000} \times 100 = 30\%$이다.

손익분기점에서는 공헌이익이 고정원가 60,000원과 같아진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frac{60{,}000}{0.30} = 200{,}000$원이다.

안전한계액은 실제 매출액 400,000원 − 손익분기점 매출액 200,000원 = 200,000원이다. 안전한계율은 이를 실제 매출액으로 나눈 $\frac{200{,}000}{400{,}000} \times 100 = 50\%$이다. 즉 현재 매출액의 50%만큼 매출이 감소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며,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4. ㈜한국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에 따라 배부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 ₩20,000
실제작업시간 1,000시간
표준작업시간 900시간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 ₩3,000(유리)

① ₩2,300(불리)
② ₩2,300(유리)
③ ₩1,700(유리)
④ ₩1,700(불리)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소비차이가 3,000원 유리이므로 실제 1,000시간에 대한 표준 허용액은 23,000원, 시간당 표준배부율은 23원이다. 능률차이는 $(1000-900)\times 23=2300$**원 불리**이므로 ①이다.

계산 과정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는 **실제발생액과 실제작업시간에 대한 표준 허용액의 차이**이다. 불리를 양수, 유리를 음수로 두면 소비차이=실제발생액-실제시간×표준배부율이다.

문제의 변동원가 차이분석에 제시된 실제발생액 20,000원과 소비차이 3,000원 유리를 대입한다. 시간당 표준배부율을 r라 하면 $20000-1000r=-3000$이므로 $1000r=23000$, $r=23$원/시간이다.

능률차이는 **실제작업시간과 실제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작업시간의 차이**에 표준배부율을 곱한다. 따라서 $(1000-900)\times 23=2300$원이다.

실제작업시간이 표준시간보다 100시간 더 소요되었으므로 능률차이는 **2,300원 불리**, 정답은 ①이다. 검산하면 표준시간 허용액은 $900\times 23=20700$원이고, 총 변동원가 차이 $20000-20700=-700$원은 소비차이 -3000원과 능률차이 $+2300$원의 합과 같다.

NoteBase

문 35. ㈜한국은 연간 최대생산량이 1,000단위인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당기에 제품 단위당 ₩80의 판매가격에 900단위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품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40이다. ㈜한국에게 200단위의 제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특별주문이 들어왔고, 이를 수락한다면 당기 예상판매량을 100단위 줄이고 특별주문의 주문량 200단위를 공급해야 한다. 이때 특별주문을 수락하기 위한 특별주문의 최소판매가격은? (단, ㈜한국이 특별주문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변동판매관리비는 단위당 ₩10이다.)

① ₩50

② ₩55

③ ₩60

④ ₩65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특별주문에는 단위당 변동원가 50원 외에 **기존 판매 100단위의 공헌이익을 잃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잃는 공헌이익 3,000원을 특별주문 200단위에 배분한 15원을 더하면 최소가격은 단위당 65원이다.

계산 과정

생산능력 확인: 최대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기존 예상판매량은 900단위이므로 유휴능력은 100단위이다. 특별주문 200단위를 수락하면 기존 판매 10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가격에는 특별주문의 변동원가뿐 아니라 **포기하는 기존 판매의 공헌이익**도 포함한다.

특별주문 변동원가: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40원과 변동판매관리비 10원을 합하면 50원이다. 판매관리비는 특별주문에도 발생하므로 제외하지 않는다. 특별주문 200단위의 총변동원가는 $200 \times 50 = 10{,}000$원이다.

기회비용: 기존 제품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판매가격 80원에서 변동원가 50원을 뺀 30원이다. 기존 판매 100단위를 포기하면 $100 \times 30 = 3{,}000$원의 공헌이익을 잃는다. 잃는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회피되는 변동원가를 차감한 공헌이익을 기회비용으로 사용한다.

최소판매가격: 특별주문으로 회수해야 할 최소 총수익은 $10{,}000 + 3{,}000 = 13{,}000$원이다. 이를 특별주문 전체 수량 200단위로 나누면 $\frac{13{,}000}{200} = 65$원/단위이다. 이 가격이면 특별주문 공헌이익 3,000원이 포기하는 기존 공헌이익 3,000원을 보전한다.

따라서 특별주문의 최소판매가격은 단위당 65원이며,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6. 다음 균형성과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균형성과표에는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외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의 네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② 균형성과표는 조직의 외부 경영지표와 내부 경영지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③ 균형성과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의 평가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④ 균형성과표에 포함되어 있는 비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주관이 개입되고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균형성과표의 네 관점은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이다. ①의 '외부 프로세스 관점'은 '내부 프로세스 관점'으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균형성과표는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으로 구성된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내부의 어떤 업무 과정을 개선해야 하는지 평가한다. 따라서 '외부 프로세스 관점'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② O: 재무적 관점과 고객 관점은 주주와 고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성과를 반영한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과 학습과 성장 관점은 업무 과정, 종업원 역량 등 조직 내부의 성과 창출 기반을 평가한다. 이들을 함께 고려하므로 **외부 지표와 내부 지표 사이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다.

③ O: 균형성과표는 이익·투자수익률 같은 재무적 지표와 고객만족도·불량률·종업원 역량 같은 비재무적 지표를 함께 사용한다. 과거 활동의 재무적 결과뿐 아니라 미래 성과를 만드는 요인도 평가하므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균형 있게** 살필 수 있다.

④ O: 비재무적 관점에서는 고객만족도나 종업원 역량처럼 평가 기준을 정하거나 측정하는 과정에 주관이 개입하는 항목을 사용한다. 이 선지는 그로 인해 **객관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한다. 불량률이나 처리시간처럼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비재무적 지표도 있으므로, 모든 비재무적 지표의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문 37. (주)한국은 신규설비에 ₩50,000을 투자하였다. 이 투자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세후 순이익(감가상각비 반영 후)은 ₩5,000이다. 신규설비의 잔존가치는 ₩0이며,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이때 회수기간과 평균투자액에 대한 회계적이익률은?

① 회수기간: 5년, 회계적이익률: 10%

② 회수기간: 5년, 회계적이익률: 20%

③ 회수기간: 10년, 회계적이익률: 10%

④ 회수기간: 10년, 회계적이익률: 2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순이익에 비현금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더한 연간 현금흐름은 10,000원이므로 회수기간은 5년이다.
회계적이익률은 **순이익 5,000원을 평균투자액 25,000원으로 나누어** 20%가 된다.

계산 과정

회수기간은 투자액을 **현금흐름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고, 회계적이익률은 **회계상 순이익**을 투자액과 비교한 비율이다. 두 지표는 분자 또는 분모에 사용하는 금액이 다르다.

연간 감가상각비와 현금흐름: 취득원가 50,000원, 잔존가치 0원, 내용연수 10년이므로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frac{50{,}000-0}{10}=5{,}000$원이다. 제시된 세후 순이익 5,000원은 감가상각비를 이미 차감한 금액이다. 감가상각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이므로 이를 다시 더하면 연간 현금흐름은 5,000 + 5,000 = 10,000원이다.

회수기간: 매년 동일한 현금흐름이 발생하므로 최초 투자액을 연간 현금흐름으로 나눈다. 회수기간은 $\frac{50{,}000}{10{,}000}=5$년이다. 순이익 5,000원만으로 나누면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현금 회수분을 빠뜨리게 된다.

평균투자액: 정액법으로 장부금액이 50,000원에서 0원까지 감소하므로 평균투자액은 $\frac{50{,}000+0}{2}=25{,}000$원이다. 문제에서 평균투자액 기준을 요구했으므로 최초 투자액 50,000원을 그대로 분모로 사용하지 않는다.

회계적이익률: 연간 세후 순이익을 평균투자액으로 나누면 $\frac{5{,}000}{25{,}000}\times 100=20\%$이다. 이 계산에서는 현금흐름 10,000원이 아니라 감가상각비 차감 후 순이익 5,000원을 사용한다.

따라서 회수기간 5년, 평균투자액 기준 회계적이익률 20%로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38. (주)한국은 당기에 영업을 개시하였고, 당기 1,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 중 800단위를 판매하였다. 당기 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 고정제조간접원가 총액은?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3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2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의 차이 3,000

① ₩ 3,000
② ₩10,000
③ ₩15,000
④ ₩18,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두 방법의 재고금액 차이 3,000원은 **기말재고 200단위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이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5원이므로, 생산량 1,000단위 전체의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5,000원이다.

계산 과정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하지만, 변동원가계산은 이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두 방법의 기말재고자산 금액 차이는 기말 제품에 배부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이다.

당기에 영업을 시작하여 기초재고가 없으므로 기말 제품 수량은 생산량 1,000단위 − 판매량 800단위 = 200단위이다.

두 방법의 기말재고자산 차이 3,000원은 이 200단위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이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frac{3,000}{200} = 15$원이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30원 + 직접노무원가 20원 + 변동제조간접원가 10원 = 60원이다. 변동원가계산의 기말재고는 200단위 × 60원 = 12,000원이고, 전부원가계산의 기말재고는 200단위 × (60원 + 15원) = 15,000원으로 차이 3,000원이 확인된다.

당기 고정제조간접원가 총액은 단위당 15원에 판매량이 아닌 생산량 1,000단위를 곱한 15,000원이다. 따라서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9. A 지방자치단체의 20×1년 말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정상태표에 표시될 일반순자산은?

자산총계 ₩1,500
부채총계 700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투자액 100
주민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공원에 대한 투자액 600
일반유형자산 재원을 위해 조달한 장기차입금 320
사회기반시설 재원을 위해 조달한 지방채증권 200
채무상환목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순자산 50

① ₩250
② ₩370
③ ₩470
④ ₩570

정답 4번

NoteBase

공통 해설

건물과 공원은 각각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이다. **고정순자산은 해당 투자액에서 그 재원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과 지방채증권을 차감**하므로 (100＋600)－(320＋200)＝180원이다. 총순자산은 1,500－700＝800원이고, 채무상환 목적의 50원은 특정순자산이다. **일반순자산은 총순자산에서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차감**한 800－180－50＝570원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자산 · 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③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입목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9.12.3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순자산의 분류)
②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③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한다.
④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NoteBase

문 40.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산의 인식과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주석 및 부속명세서로 공시한다.

②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정답 1번

①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부속명세서에도 공시한다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개정 2024.7.31>

②

국가회계실체 사이의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이면 장부가액, 유상거래이면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②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개정 2015.12.31>

NoteBase

③

국가안보 관련 자산은 **담당 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종류·취득시기·관리현황 등을 별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선지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던 협의 업무는 현재 재정경제부장관이 담당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④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NoteBase